

적자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 2000~2010년

이은화(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과 소비자학전공 박사과정)

양세정(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본 연구는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특성과 원인을 시대별흐름에 따라 비교함으로써 적자가계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적자가계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사회인구적 특성,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규모를 비교하고, 적자가계의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시대별 흐름에 따른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특성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00, 2005, 2010년 세 개년도의 원자료에서 도시가계만을 분석에 포함하였고, 1인 가구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지출이 가계소득을 초과하는 가계를 적자가계로 정의하였으며, 가계소득과 가계지출과 동일하거나 가계소득이 가계지출을 초과하는 가계를 흑자가계라 정의하여, 총 16,804 흑자가계와 6,392 적자가계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분석 방법은 기술통계분석, t-test, GLM, 카이검증, 로짓분석이며, 연도별 소득과 지출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소득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자가계의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적자가계의 비율은 2000년에서 2005년도로 오면서 증가했다가 2010년도에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27%를 상회하는 비율로 적자가계의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2000, 2005, 2010년 가계의 총소득과 총지출을 비교한 결과, 일반적으로 흑자가계의 가계소득이 적자가계의 가계소득보다 평균 약 150만원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가계소득의 격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 적자가계의 가계지출이 흑자가계보다 평균 약 18만원 더 많았으며, 2000년에서 2010년으로 오면서 지출액의 차이는 커졌다. 또한 가계소득에서 가계지출을 뺀 나머지 차액은 흑자가계의 경우 2000년에는 약 89만원, 2005년 약 112만원, 2010년 116만원으로 점차 증가하여 가계의 저축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적자가계는 가계소득과 지출의 차액이 점차 커지면서 2000년 -581,206원, 2005년 -710,199원, 2010년 -636,244원으로 적자액의 규모가 2005년도에 증가했다가 2010년에 다소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적자가계의 평균가계소득인 약 222만원의 29.3%에 해당하는 65만원을 넘는 금액을 지출한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가계의 적자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채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셋째,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소득비율을 분석한 결과, 적자가계의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의 비중이 흑자가계보다 높았고 경상소득과 근로소득이 흑자가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가계는 식료품,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 보건, 교통, 오락문화, 교육, 이자비용의 품목의 지출이 높았는데, 특히 교육비에 지출하는 금액이 흑자가계보다 높고 전체 지출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다는 점에서 과도한 교육비 지출의 적자가계로 유인했을 가능

성을 보여주고 있다. 흑자가계는 ·주류·담배, 의류·신발, 통신,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 조세·연금·사회보장, 이전지출과 같이 선택재적 성향이 큰 소비지출에 지출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적자가계와 흑자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성이 가구주인 가계, 가구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계, 가구원수가 적은가계,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낮은 가계, 가구주가 비근로자이거나 비 취업상태인 가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가계의 경우 적자가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주의 연령이 30세 이하인 가계 혹은 가구주가 남성이나, 맞벌이가계, 근로자인 경우 적자가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2000년도에 비해 2005년도가 적자가계에 속할 확률을 감소시켰다. 사회인구적 특성을 포함한 모델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취업상태인 경우, 맞벌이가계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대적으로 적자가계에 포함할 확률을 감소시켰다. 가계소득특성을 추가로 포함한 경우, 여성가구주인 경우, 취업상태인 경우, 맞벌이가계의 경우, 가계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적자가계에 포함될 확률이 낮았다. 반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구연령이 40, 50대-60대 이하인 가구주,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자가계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현재 자료가 공개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분석에 포함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보완연구가 필요하여, 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계 내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환경 등 외적 요인들도 고려하여 추가 분석이 계속 이루어져야한다. 향후 가계의 적자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적자가계의 유형을 구분하여 연도의 흐름에 따른 유형별 특징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한 가계의 경제수지를 추적 분석할 수 있는 가계관련 패널데이터 자료 분석이 가계의 적자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양세정(2010). 적자가계의 특성 및 경제구조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1), 135-149.
통계청(2013). 소비자물가지구 통계치.